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In

International Social Economy Policy Focus

6월 테마 - 지역개발 전략과 사회적경제

정책 In. 사회적경제의 지역개발 전략 : EU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 In. 프랑스 아비스(AVISE)의 지역개발 정책 및 성과

뉴스 In. 지역개발 주요 소식 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사회적경제의 지역개발 전략 : EU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탄생하였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이 가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특성과 배경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태생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근원인 '지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 그러나 급격한 세계화의 한계가 드러나고 전 세계가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면서 세계의 관심은 다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OECD, EC 등의 국제기구에서 최근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주목 중이고, 국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발전과 관련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법안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최근 지역자산화(community assets)¹⁾, 지역관리기업(Régie de Quartier)²⁾ 등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문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모두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이번 호 『Zoom-In』에서는 '지역개발전략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유럽의 지역개발 전략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In]에서는 2020년 OECD에서 발간한 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해당 보고서는 4개 국가(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폴란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관련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였으며, 그러한 특징과 배경 하에서 지역개발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비교·분석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관점과 전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상황이 어느 국가와 유사한지, 국내 정책에 적용할 시에 참고할만한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사례 In]에서는, 프랑스 AVISE의 DLA(Dispositif local d'accompagnement : 지역동반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뉴스 In]에서는 최근 지역개발 관련 주요 보고서 발간소식과 행사소식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원 문]

"Regional Strategies for the Social Economy: Examples from France, Spain, Sweden and Poland", OECD, 2020/03

1. 사회적경제 분야 지역개발 사례 :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해 왔으며, 보조금이나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본 내용은 2020년 OECD가 발표한 LEED 보고서를 바탕으로 EU 4개 국가(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의 사회적경제의 지역 전략과 지역 개발간의 연계성을 살펴보자 한다. 본 내용은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 전략을 비교·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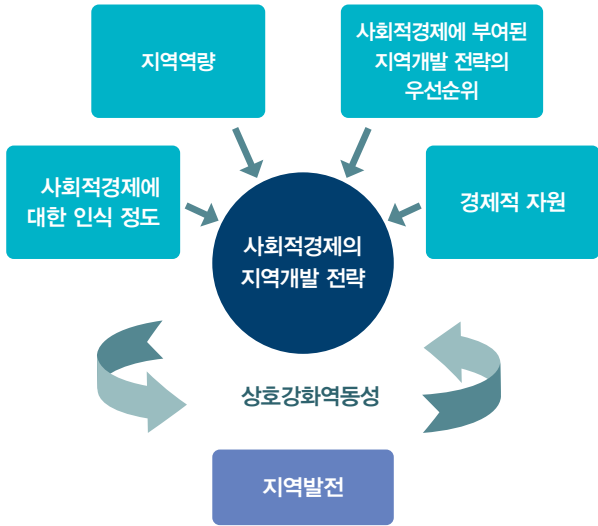
4가지 차원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각 국가별 사회적경제 자체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지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각 국가별 거버넌스 방식은 지역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 각 국가별 사회적경제에 부여된 지역 개발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 4) 지역 전략에 가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의 효율성은 어떠한가?

¹⁾ 지역자산화(community assets)는 지역의 주민들이 건물, 토지, 공간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며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

사회적경제의 지역개발 전략 : EU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그림 1] 지역개발 전략의 다양한 요인



1. 프랑스

1) 배경

프랑스에서는 2015년 기준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가 230만개로 프랑스 전체 유급 고용의 9.1%를 차지했다.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지역사회연대경제회의(CRESS)는 지역개발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프랑스의 Ile-de-France, Brittany, New Aquitaine, Corsica 4개 지역은 2016~2017년에 활발한 지역개발 정책을 펼쳤으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갖고 있었다. 지역개발 프로그램에서 사회적경제 제도화를 시작하였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통합하기도 하였다.

2) 전략

프랑스 4개 지역의 지역개발 전략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사회혁신,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 농촌 지역의 발전이었다. Ile-de-France에서는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소셜벤처의 탄생을 도왔으며, Corsica에서는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혁신 전략을 취했다. Brittany에서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역 개발 전략을 수립하였다. New Aquitaine에서는 경제 개발과 고용 측면에서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경제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소멸되고 있는 농촌지역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3) 자금조달

프랑스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BPIFrances는 사회혁신기금인 FISO를 설립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에서 균등하게 펀드를 지원하였다. FISO는 국가 전역의 사회적 임팩트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등에 열려 있었다. 국가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관리하는 FNDVA와 같은 조직들도 있었지만 정부 지원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4) 거버넌스

CRESS는 프랑스 지역사회에 잘 정착되어 있었고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대부분의 지역 당국은 이러한 지역의 네트워크와 다년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Corsica지역의 경제개발국은 네트워크간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부서를 설립하였다. Brittany지역은 네트워크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Ile-de-France에서는 BPIfinace, CDC와 같은 은행, 지방 당국, France Active³와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이 CRESS와 연합하였다.

5) 성과

프랑스의 모든 지역은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도가 지표가 되었다. INSEE에 따르면 2015년 Brittany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전체 고용의 14.3%, Corsica는 8.6%, Ile-de-France는 7.1%, New Aquitaine은 12%를 차지하였다.

6) 모니터링

4개 지역의 CRESS는 사회적경제가 지역개발에 기여한 주요 성과 수치와 데이터를 발표하였지만 사회적 임팩트와 지역 발전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²⁾ 지역관리기업(Régie de Quartier)은 1980년대 프랑스의 후베시 알마가르 마을에서 시작되었으며 정부주도의 지역개발 정책에 대응하여 지역주민들이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함. 이러한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을 벤치마킹해 만든 국내 모델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이와 유사함

³⁾ 3 France Active는 사회적기업의 사업지원 및 자금 조달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네트워크

사회적경제의 지역개발 전략 : EU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2. 스페인

1) 배경

스페인은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로부터 회복 단계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주요 기업의 파산 등이 일어났다. 이러한 위기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포함하여 정부 지출의 감소로 이어졌다. 2015년 스페인의 사회적경제는 13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이는 전체 유급 노동의 7.7% 정도였다. Balearic 제도, Murcia, Galicia, Navarre, Basque는 사회적경제가 활발한 지역으로 지역경제 전반을 사회적경제에 가까운 모델로 전환하고 사회적가치를 지역 정책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Galicia는 기업가 정신, 농촌개발, 교육과 연관된 공공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2) 전략

Balearic 제도, Murcia, Galicia, Navarre 지역은 지역 전략의 주요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였다. 스페인이 EU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업률(2019년 12월 기준: 13.7%)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Navarre 지역의 계획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주요 우선 순위에 포함시켰다. 실업률이 높은 Murcia(14%)와 Galicia(11.5%) 지역에서는 지역 전략에 명확한 양적 목표(연간 3500개의 일자리 창출, 80%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고용에 중점을 두었다.

3) 자금조달

스페인은 2014~2020년 ESF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ESF펀드를 통해 3,100만 유로가 스페인의 사회적경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사회적기업가 정신 확대, 사회혁신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 파트너십, 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고용 활성화를 주요 역할로 하였다.

4) 거버넌스

스페인은 지역 당국, 대학, 협회, 민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파트너십 모델을 개발했다. CEPES⁴는 협동조합연합회와 같은 지역의 주체들이 지역에서 우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 네트워크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며 Navarre지역의 연합회 설립을 돕거나 Murcia에서는 지역개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지역정부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5) 성과

4개 지역의 지역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에 대한 평가는 미흡했다. 그러나 노동자 소유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스페인 고용부가 내린 조치에 비춰볼 때, 사회적경제가 다수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고용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개발을 보다 강화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6) 모니터링

사회적경제협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조직과 함께 평가 방안을 구축하였다. Murcia와 Navarre에는 비공식적 모니터링 위원회가 있다. Murcia와 Navarre는 지표, 절차, 모니터링 계획과 같은 세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다. Galicia와 Balearic 제도에는 위원회가 모니터링 기관 역할을 했다.

3. 스웨덴

1) 배경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으로 공공이 모든 시민에게 의료, 교육,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국가이다. 공공 섹터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NPO조직이 성장한 노르딕(Nordic) 복지국가의 여러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1970년대 후반 대기업이나 산업 활동의 쇠퇴에 대응으로 소규모의 지역 커뮤니티에서 사회적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 활동이 활발해졌다. 스웨덴의 사회적경제는 2015년 거의 20만 개의 유급 일자리를 제공하여 전국 전체 유급 고용의 4.4%를 차지했다.

2) 방향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하거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는 없었다. 2018~2020년 국가 전략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실제로 스웨덴의 지역개발 전략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을 통합하는 방식과 범위는 지역별로

⁴ The Spanish Business Confederation of Social Economy

사회적경제의 지역개발 전략 : EU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했다. 2020년 스웨덴 정부는 Örebro주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전략을 사회적경제와 연계하기 위해서 핸드북을 개발하거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Östergötland 지역에서는 2030지역개발 프로그램 전략에서 사회적경제가 언급되었고, 공공 조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3) 자금조달

스웨덴의 혁신 기관인 Vinnova 프로그램은 지역과 지역의 주체들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펀딩을 지원하고 지역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도왔다. 12개의 주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펀딩을 받았다. 지역 차원의 모든 프로젝트는 Companion⁵⁾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4) 거버넌스

여러 지역에서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지역적 합의는 종종 상향식(Bottom up)방식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2008년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들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건강 케어와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협약⁶⁾을 하였다. 그 협약은 공공 섹터와 시민사회 관계자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와의 더 많은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5) 성과측정

사회적기업은 고용의 기회 측면에서 성과가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2018년에는 WISEs 343개 사회적기업에서 35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2019년 Örebro 지역의 행정부는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가 미치는 사회적 임팩트 평가 방법을 찾기 위해 기존 사례들의 현안을 조사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공식화하였다.

6) 모니터링

Örebro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실행 계획의 진행상황이 매년 지역개발부에 보고되었다. Västra Götaland 지역은 사회적기업을 위한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고 Skåne 지역은 2030 프로그램의 목표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결과 지표를 포함하였다. Västerbotten 지역은 EU의 2020년 전략과 추가 지표를 보완하여 지역개발 전략의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4. 폴란드

1) 배경

폴란드의 경제는 2004년 EU가입 이래로 큰 변화를 겪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폴란드는 OECD 30개 국가 중에 5번째로 지역 경제 수준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 2015년 사회적경제 분야의 유급 고용은 전체 고용의 2.3%로 낮았고, 이러한 낮은 고용률은 협동조합 설립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양산하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2) 방향

폴란드의 모든 지역은 2020년까지 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와 협력할 것을 요구 받았다.⁷⁾ 지역 전략의 주요한 목표는 지역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이고 전문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가 공공섹터와의 파트너십을 갖고 공공사회복지의 제공자가 되는 것이었다.

3) 자금조달

폴란드 사회적경제의 전략은 다양한 곳으로부터 펀딩을 받는 것이었다.⁸⁾ 2019년 9월에 승인된 공공조달법의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과 기타 사회적기준을 충족하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소개되었고,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다양한 기회가 되었다.

4) 거버넌스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았다.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영역, 비즈니스 조직간의 협력의 부족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결과였다. 따라서

⁵⁾ Companion : 스웨덴 협동조합의 발전을 돕는 우산 조직

⁶⁾ 협약의 내용은 6개로 다음과 같다. 1)독립과 자율 2)상호협 3)품질 4)장기적인 접근 5)개방성과 투명성 6) 다양성

⁷⁾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자리 창출 2)취약하고 소외된 그룹의 통합 촉진 3)공공복지 서비스의 접근 성 보장 4)농촌과 소외된 지역의 개발 지원 5)관광산업의 촉진

⁸⁾ 펀딩 유형 : 1)EU기금 - ESF와 16개 지역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 운영프로그램인 KED 2)공적기금 3)민간기금

사회적경제의 지역개발 전략 : EU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부문간의 협력과 지역공공행정의 사회서비스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 이슈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5) 성과측정

폴란드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잠재력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못했고 사회적경제로 고용율을 높이거나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은 기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자원봉사나 공공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공공과 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잠재력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었다.

6) 모니터링

모든 지역은 ESF하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을 평가할 것을 요구 받았지만 사회적경제의 지역전략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하는 공통적인 시스템은 없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전략에 대해 요약된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한 리포트를 연간 또는 격년으로 제공했으며 가족노동사회정책부는 사회적경제의 경제적·사회적 임팩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2. 4개 국가별 특성 분석

위 내용을 종합하여 4개 국가의 지역개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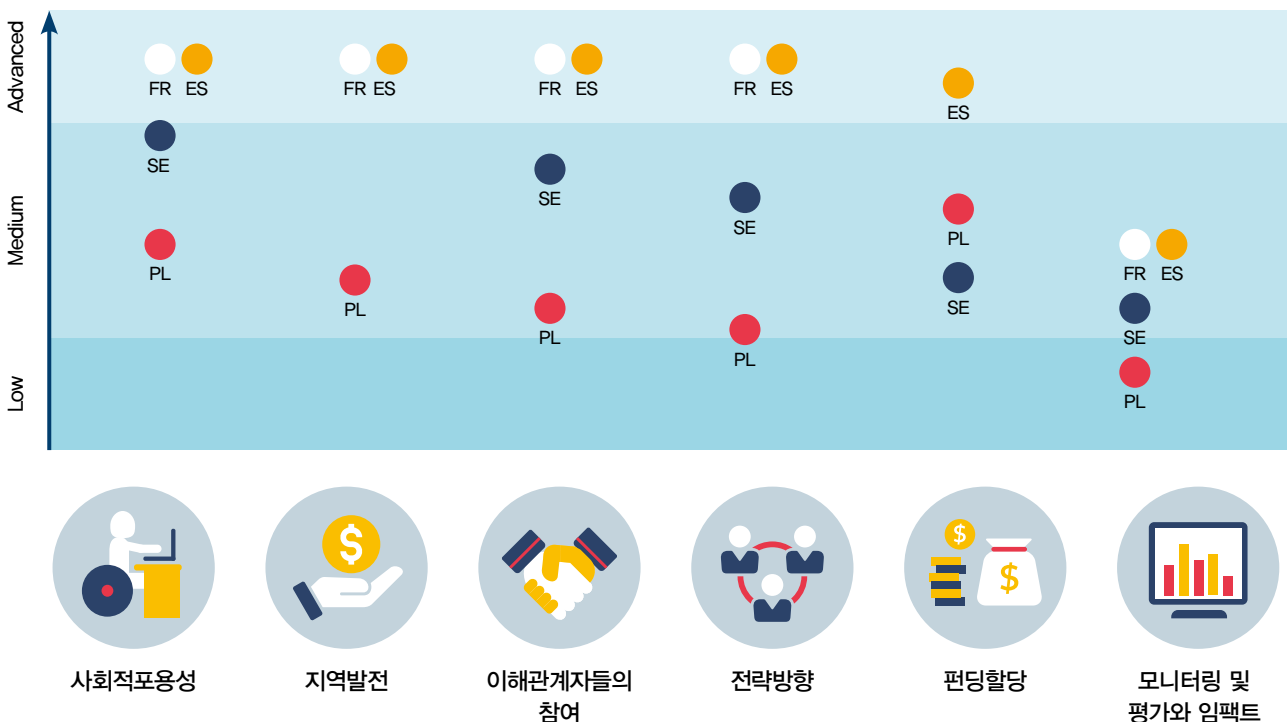
1) 국가별 사회적경제 자체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경제 인식 정도에 따라 사회적경제와 지역개발의 효과성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된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개발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었으나,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폴란드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지역개발의 전반에 관여하기 보다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다.

2) 국가별 거버넌스 방식은 지역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해관계자간의 거버넌스가 잘 형성될수록 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상향식(Bottom up) 논의

[그림 2] 4개 국가의 지역개발 전략의 발전 정도



사회적경제의 지역개발 전략 : EU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구조는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지역적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사회적경제와의 더 많은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지역 당국, 대학, 협회, 민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파트너십 모델을 개발했으며, 프랑스는 지역 사회에 잘 정착되어 있는 공식 거버넌스 기구인 CRESS를 통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활발한 거버넌스는 공식적인 협약, 법률 제정, 부서의 신설 등을 이끌어 내며 지역개발에 기여하였다.

3) 국가별 사회적경제에 부여된 지역개발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지역개발의 우선순위는 각 국가가 처해있는 지역 문제와 사회적 배경에서 기인하였다. EU 국가들 대다수가 실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4개 국가 모두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개발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세웠던 스페인의 사회적경제는 2015년을 기준으로 130만개 일자리를 제공했으며(전체 유급 노동의 7.7%) 프랑스의 일부 지역(Brittany)의 경우에는 전체 고용의 14% 이상의 높은 고용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사회혁신을 보다 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스웨덴의 경우에는 사회문제 해결이나 임팩트를 내는 것에 더 집중하였으며 폴란드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사회적경제가 지역개발에 보다 기여하도록 하였다.

4) 지역 전략에 가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의 효용성은 어떠한가?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자원은 모든 국가에서 강조되었다. 대다수의 지역개발 프로젝트에는 EU펀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금 지원이 기반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국가별, 지역별 사회혁신 기금 등이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활용되었다. 또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지속적인 자금 투입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1) 사회적경제와 지역의 발전은 서로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정부와 지역은 지역의 발전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회적경제도 확장된다.
- 2) 이해관계자외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협력 뿐만 아니라 오너십을 확대하고 사용자 관점에서의 소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게 된다.
- 3) 지역개발 전략에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주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실행해야 한다.
- 4) 사회적경제의 지역개발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모니터링과 측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역 개발 전략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개발의 경우 사회적 배경과 환경이 매우 다른 현실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험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EU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들을 통해서 1) 사회적경제와 지역개발의 관계성 정립, 2) 지역개발의 목표 설정, 3) 거버넌스의 중요성, 4)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개발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 사회적경제가 지역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원칙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나오며

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의 제도적 조직, 지역의 역할, 국가경제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도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지역개발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사회적경제의 지역개발 전략의 시사점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프랑스 아비스(AVISE)의 지역개발 정책 및 성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등 EU 4 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정책 In]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례 In]에서는 프랑스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인 아비스(AVISE)와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지역동반프로그램(DLA) 사업 소개를 통해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어떻게 기획하고 집행했는지 살펴본다.

1. 아비스는 어떤 기관인가?

아비스(AVISE, Agence de Valorisation des Initiatives Socio-Economiques)는 프랑스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라 2002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이다.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노동통합기업, 사회혁신, 사회적 임팩트 평가와 보급 등 5대 분야를 지원하는게 핵심 목표다.

프랑스 사회적경제는 금융지원, 경영지원, 경영인 연대 등 3가지 분야로 나뉜다. 아비스는 사회적경제기업 창립부터 성장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지만, 특히 '경영지원'에 특화돼있다. '금융지원'에 특화된 조직으로는 'France Active'⁹⁾가, '경영인 연대'로는 'Mouves'¹⁰⁾가 대표적이다.

프랑스에는 2000년대 초까지 사회연대경제 부문별 조직은 있었지만, 이를 망라하는 조직이 없었다. 이에 전국 단위 민간 지원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됐고 아비스가 조직됐다.

2018년 기준 아비스의 예산은 300만 유로(약 41억 원)다. 이 중 47%는 프랑스 공적 금융기구인 예금공탁공사에서, 37%는 유럽사회기금과 프랑스 정부 지원금에서, 11%는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에서, 5%는 회비와 판매로 조달한다. 지출 대부분은 인건비(60%)로 활용된다. 구매·용역·특별자금지원(23%), 운영비(17%) 등에도 쓰인다. 2019년 기준 조직 규모를 보면 이사회는 사회적경제 분야 인사 22 명으로 구성돼있고, 38명이 상근직으로 근무한다.

주요 사업은 DLA(지역동반지원프로그램), PIA(미래투자 프로그램)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ESF(European Social Fund) 일부 운용 등으로 나뉜다.

아비스가 ESF의 프랑스 몫을 일부 운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다. ESF는 EU가 각국에 배분하는 구조기금이다.

이 기금은 1) 실업문제 해결, 2) 사회통합, 빈곤 및 차별극복, 3) 사회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4) 공공행정 개선을 위해 쓰인다.

2. 아비스의 지역동반프로그램(DLA)

아비스의 대표 프로그램 중 지역동반프로그램인 DLA(Dispositif local d'accompagnement)는 지역 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DLA 운영기관은 프랑스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한다.

DLA는 자금 여유가 없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지 못하는 영세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인건비나 사업개발비 등 직접 재정지원이 아니라 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주로 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된다.

2019년 기준, DLA의 운용 예산은 2,760만 유로(약 375 억원)다. 정부 자금(42%), 공탁예금공금(22%), 유럽기금(16%), 지방의회(11%), 데파르트망 의회(4%), 기타 지자체(2%), 기타(2%), 수혜자 참여비(1%) 등으로 구성된다.

DLA의 지원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association)가 9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통합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4% 정도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DLA지원을 받으려면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DLA는 AVISE 설립 연도인 2002년부터 20년 가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총 6만2000개 이상의 조직이 지원을 받아 81만 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DLA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신청-진단-참여-모니터링까지 4단계를 거친다. 1단계에서는 DLA운영기관이 미팅 등의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진단한다. 사업 성격이 DLA에 맞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이때 해당 기업은 DLA사업 이외의 다른 지원사업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2단계에서는

⁹⁾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네트워크 조직

¹⁰⁾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가 연대 네트워크 조직

¹¹⁾ 데파르트망과 레지옹은 프랑스의 행정 구역 단위로, 예를 들어 레지옹이 광역이라면 데파르트망은 기초를 의미함

프랑스 아비스(AVISE)의 지역개발 정책 및 성과

기업의 문제점 파악 등 총체적 진단을 실시한다. DLA지역 담당자가 심층 판단을 맡는다. 3단계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 외부 기관에 서비스를 위탁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넘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투입된다. 4단계에서는 지원프로그램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DLA운영기관은 데파르트망(départements) 단위에 103개, 레지옹(région) 단위에 17개가 있다¹⁾. 지역 단위 운영기관은 대부분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맡고 있다.

지역 단위 운영기관과는 별도로 섹터별 운영기관도 있다. ①문화 ②환경 ③사회복지·사회의료·보건 ④스포츠 ⑤노동통합 ⑥금융 등 6개 섹터다. 프랑스에서는 ①~⑤가 사회적경제기업 업종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아비스는 DLA의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운영기관들이 사업을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동시에 노동통합 분야 DLA운영기관을 맡고 있다.

[그림 3] 레지옹(région) 단위 DLA 프로그램 운영기관

DLA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와 네트워크는 모든 거점 지역에 존재한다. 지역에 있는 기관들은 SSE 지원과 자금 조달 기술 등을 인정 받았다. 아래는 프랑스에서 DLA 사업을 담당하는 레지옹 단위 운영기관으로 Territorial Funds France 연합운동, CRESS, BGE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표기관이다.



프랑스 아비스(AVISE)의 지역개발 정책 및 성과

3. 지원 성공 사례

■ 사례 1: 벨포르(Belfort) 지역 DLA의 'Domicile 90'을 지원¹²

벨포르는 1880년 첫 증기 기관차가 생산된 프랑스 산업을 상징하는 도시다. DLA 지원으로 벨포르 내 주택 지원 협회인 Asad 90, Point Families, Val d'or 등 3 개가 합병해 'Domicile 90' 협회를 설립했다. 3개 기관은 이 과정에서 벨포르 지방의 교육 및 고용 정보국(MIFE)이 주관하는 벨포르 지방의 DLA의 지원을 받았다.

Domicile 90 협회는 DLA 프로그램 진단 단계에서 기업 합병시 발생할 사회적 효과, 법적문제 검토, 공통가치 등을 재정비 했다. 또한 종합 프로젝트 개발과 협력사업에 대한 연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합병 이후 발생할 문제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를 마련할 수 있었다.

Domicile 90 협회는 기업의 정체성, 추구 가치, 기업구조 보완, 의사소통 개선 등을 발전시켰다. 이후 기업 합병에 대한 영향 분석, 근로계약서 작성, 구성원 복지 혜택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부사항 조정이 진행됐다. 현재 Domicile 90 협회는 합병 이후 벨포르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사례 2: 에손느(Essonne) 지역 DLA의 'Cartable Fantastique' 지원¹³

에손느 지방의 Cartable Fantastique는 구성원이 대부분 교사로 이뤄진 지원 단체다. 이들은 장애 아동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2014년에 에손느 DLA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DLA의 지원을 받으며 프로젝트의 모델 설계와 예산 확보, 전문성 증진 등에 집중했다. DLA진단 결과, 통합운동장애를 가진 아동과 가족들에게 오픈 소스 형태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모델을 설계했다. 예를 들어, 장애 학생들이 태블릿이나 PC 를 활용해 읽기, 쓰기를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교사들에게는 장애 학생 지도를 위한 위한 맞춤형 문서를 제공했다.

이후 해당 프로젝트는 사회혁신상을 수상했고, 주 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2015년,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Fondation la France s'engage(FFE)' 재단이 사회혁신 운동 중 하나로 해당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Cartable Fantastique는 사업이 끝난 이후 DLA와 합동 워크숍을 열어 성과를 공유했고, 1년 간의 후속지원까지 받았다. Cartable Fantastique의 카롤린 휴론(Caroline Huron) 회장은 "DLA사업 덕에 크게 성장했고, Fondation Bettencourt Schueller 등 다른 기관과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지원받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에손느 주 위원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젝트 담당자인 엘리스 크롤라(Alice Crola)는 "DLA의 지원 덕에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가 빠르게 성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가능하며, 훌륭한 네트워크를 통해 적절한 개발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사례 3: 누벨 아키텐(Nouvelle Aquitaine) DLA 성과¹⁴

누벨아키텐은 기존에 아키텐, 리무쟁, 푸아투사랑트 등 서로 다른 3개의 레지옹이 2016년 병합돼 새로 탄생한 레지옹이다. 약 10만개의 단체가 활동 중이며, 그 중 1만5,000개의 단체에서만 모두 16만명의 유급 직원이 근무 중이다.

누벨아키텐 지방정부는 지역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는 이런 조직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 신탁 은행과 함께 DLA를 공동 책임지고 있다. 제네이예브 바라(Geneviève Barat) 누벨아키텐 부도지사는 "누벨아키텐에서 DLA는 지역의 변화를 파악하고 사회적경제의 필요에 부합한 활동을 한다며 3개 레지옹이 합병했을 때도 DLA의 빠른 대응 덕에 이전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넓어진 범위에 맞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누벨아키텐은 DLA운영기관과 조직적, 경제적, 행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 조직적인 면에서는 지방 의회가 주도적으로 국가와 신탁 은행과 함께 대책을 세우고, 매년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지방 의회에서 매년 DLA에 약 20만 유로(약 2억 7000만 원)를 지원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DLA담당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운영 위원회에 참여한다.

¹²⁾ 출처-DLA 2016년 자료집 바로가기 [클릭](#)

¹³⁾ 출처-DLA 2018년 자료집 바로가기 [클릭](#)

¹⁴⁾ 출처-DLA 2018년 자료집 바로가기 [클릭](#)

프랑스 아비스(AVISE)의 지역개발 정책 및 성과

■ 사례 4: 브루타뉴(Bretagne) DLA 성과¹⁵

브루타뉴 DLA는 2017년에 관내 296개의 조직(직원 총 6,253명)을 지원했다. 브루타뉴 지방에는 무려 7만개의 단체(사회적경제 종사자 총 14만9,000명)가 있다. 이 단체들은 경제, 지방 관할권, 발전 모델 등의 이슈를 다루며, 브루타뉴 지방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단체들은 DLA의 지원, 특히 구인 관련 지원에 의지한다. DLA는 지방에 뿌리깊게 정착해있고, 위원회로부터 후원을 받으며, 다양한 지방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실용성과 변화에 따른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사회적경제 모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안느 파토(Ane Patault) 브루타뉴 지방 의회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브루타뉴는 프랑스 예금공탁공사, 브루타뉴 지방의회, 프랑스 노동청 등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DLA 담당자들 간 양질의 협상을 가능하게 한다. 또 프랑스 중간지원 조직인 CRESS(사회적경제지방회의소)가 DLA 운영을 뒷받침하고, 경험을 전수하는 등 집단 역량을 향상시킨다.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환경을 파악하고, 활동에 대한 공동 의견을 취합해 단체활동을 활성화한다. DLA는 또한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4. 시사점

아비스는 전국 단위 조직이고 지역별로 지원기관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와 유사하다. 아비스는 비영리 민간조직인 것이 다른 점이지만 사회적경제가 뿌리내리게 된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비스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예산 편성 부분이다. 프랑스 정부 자금뿐 아니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EU 기금, 수혜자 참여비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관심이 지역 활성화의 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6개 섹터를 나눠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지역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분야별로 점검함으로써 빠트림 없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아비스의 지역 정책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약 20년간 추진해 온 과정에서 쌓은 실행 노하우 등이다. 아비스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사회적경제 지역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¹⁵⁾ 출처-DLA 2018년 자료집 바로가기 [클릭](#)

지역개발 주요 소식 외

1. 행사 정보

[GSEF]

- 주 최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 행사명 : GSEF 2021 국제사회적경제 포럼
- 일 시 : 2021. 10. 4~8.
- 장 소 : 멕시코시티
- 주제 :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
- 주요세션 :
 - ① 공공정책을 통한 SSE 촉진 : GSEF, UNRISD, UCLG가 공동 주최하여 SSE 정책이 시행된 지방 정부를 위한 7가지 사례(바르셀로나, 다카르, 더반, 리버풀, 멕시코 시티, 몬트리올, 서울) 연구 발표(10/4)
 - ②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와 SSE 간의 협력 및 파트너십 : 지방 정부와 SSE 주체 간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모범 사례 공유 및 파트너십 공유 방법 소개(10/7)
 - ③ 지역 관점에서의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사회적경제 :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형성하기 위해 이전 세션의 성찰과 토론(10/8)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ESS International Forum]

- 주 최 : 카르타고 대학, 오토 알자스 대학
- 행사명 : 제2회 국제사회연대경제포럼
- 일 시 : 2021. 10. 26~28.
- 장 소 : 프랑스/튀니지
- 주제 : 지역에서 국제까지 협력의 호혜 :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연대경제의 창의성
- 주요내용 : ESS, 시민사회, 지역 및 대학(북부와 남부)의 주체들이 함께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지역 개발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2. 발간정보

[LOCAL 2030 SWEDEN HUB]

- 발간기관 : Global Utmaning, 발트해국가협의회
- 발간국가 : 스웨덴
- 발간시기 : 2020. 12.
- 제목 : 스웨덴의 2015-2020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한 국가 전략(Localis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Baltic Sea Region: A Handbook)
- 주요내용 : 전문가 및 지역 당국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발트해 2030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결과를 정리한 핸드북. UN 2030 의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국가 수준에서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로드맵을 비롯해 우수사례, 권장사항 등을 제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GSEF]

- 발간기관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UNRISD
- 발간국가 : 유엔
- 발간시기 : 2021. 1.
- 제목 : 지방정부를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s on Policies f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주요내용 : 정부 관계자에서 사회적경제 실무자까지 지역 내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지침서로, 지방 정부에서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 법률 제도 및 정책, 지원조직, 역량 강화, 금융 접근, 시장 접근, 인식 제고 및 홍보, 사회적경제 분야 연구 및 데이터 수집 등을 다룸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LOCALITY]

- 발간기관 : 로컬리티
- 발간국가 : 영국
- 발간시기 : 2021. 4.
- 제목 : 유럽 전역의 커뮤니티의 힘(The power of community across Europe)

지역개발 주요 소식 외

- **주요내용** :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8개 유럽 국가(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내 지역 커뮤니티의 반응과 역할을 수록. 지역사회단체가 가장 힘든 시기에 어떻게 이웃을 지원하는지 연구한 보고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UrbaMonde]

- **발간기관** : UrbaMonde, CoHabitat Network, We Effect
- **발간국가** : 스웨덴
- **발간시기** : 2020. 12.
- **제 목** : 커뮤니티 주도 주택 : 코로나19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Community-Led Housing in the COVID-19 context)
- **주요내용** : 2020년 9~11월 사이에 실시된 글로벌 설문 조사와 52개 인터뷰를 실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서 커뮤니티 소유 주택이 여성의 가정 업무량을 줄이고 고립, 외로움 및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집단활동을 촉진시키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조사 결과를 수록한 보고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3. 기타동향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 **국 가** : 미국
- **성 격** : 논평
- **주요내용** : 공공조달이 사회적경제를 촉진하는 방법과 지방 정부가 사회적책임조달 전략을 수립하는 예시 등 소개

• **발 표 자** : Eva Varga, Euclid Network 부사장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Pioneers Post]

- **국 가** : 영국
- **성 격** : 뉴스
- **주요내용** : Conservative MP와 시민사회 리뷰 저자인 Danny Kruger가 영국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기금에 대한 소개와 의미에 대해 인터뷰 한 글. 글에서는 영국 사회적기업이 참고할 자금으로 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The Shared Prosperity Fund', 산업 지역과 인프라가 부족한 마을 및 해안지역을 돕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The Levelling Up Fund', 사회 및 환경에 중점을 두는 'Dormant Assets', 국채 상환을 위해 탄생한 'The National Fund' 등을 소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Farming Life]

- **국 가** : 북아일랜드
- **성 격** : 뉴스
- **주요내용** : Edwin Poots 영국 농촌부 장관은 최근 농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농촌사회적경제투자계획을 처음으로 시행. 이 계획은 농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 농촌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 일환으로 뉴캐슬의 Kairos Enterprises에 34,000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 (지역사회 야채 매장 개발 지원 및 현지 상점 운영 지원)하는 제안서 전달.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경제 관련 원활한 지식교류 및 정보 확산을 위해 해외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례를 격월로 발간하는 정책매거진입니다.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 이메일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 및 이메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독신청 ☎ 031-697-7774 (e-mail) jskim@ikosea.or.kr

발행인 김인선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편집** 이로운넷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더 읽어볼 참고 사이트

연번	기관명	주요내용
1	Alter'Incub 바로가기 클릭	Alter'Incub는 2007년부터 프랑스 최초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역 인큐베이팅 기관으로,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가에게 재무 및 경영계획 수립 등의 지원은 물론, 지역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등도 함께 지원. 이를 통해 57개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357개 지역 일자리를 창출('18년 기준). 현재 프랑스 4개의 지역 인큐베이터 네트워크(Auvergne-Rhône-Alpes, Centre Val-de-Loire, Occitanie Méditerranée, Occitanie Pyrénées)를 이끌고 있으며, 현재 센터 행정 구역에서 여섯 번째 인큐베이터 네트워크가 시행되고 있음.
2	Association for Development of Bałtów Com-mune "Bałt" 바로가기 클릭	공산주의 몰락 후 높은 실업률 등 여러 지역문제를 안고 있었던 폴란드 남부 바우투우 시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관광과 경제개발을 목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경지 및 관광 인프라 개발에 나섬. 바우투우 지역에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된 것을 토대로 옛 제재소 부지에 주라기 공원 설립을 시작으로 강변 래프팅, 스키 솔로프, 승마센터, 지역 공예품 개발판매 등이 가능한 Bałtów Turistic Complex를 조성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접목한 사업 개발. 또한 Bałtów Turistic Complex 전체 관광 인프라 서비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사회적기업 '알로자우르(Allozaur)' 설립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운영해 바우투우 지역을 연간 15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AVISE 바로가기 클릭	프랑스 전국 단위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지원기관.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지역동반사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 동반지원프로그램(DLA)를 운영하며, 지역주체·지자체·광역시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가 공공정책에 반영 되도록 지원.
4	Bevy Pub 바로가기 클릭	영국 브라이튼의 지역사회협동조합 'Bevy Pub'은 펍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입을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 코로나19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폐점 후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고립된 사람들에게 서비스와 식사를 무료 제공 할 수 있도록 재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 제공.
5	BPIFrances 바로가기 클릭	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 시드 머니 대출, 주식 시장 상장, 신용 등과 관련하여 기업가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은행.
6	CECOP 바로가기 클릭	산업 및 서비스협동조합의 유럽연합인 CECOP(15개 유럽 국가의 25개 회원 참여)는 유럽의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협동조합이 코로나19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발표.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Arca di Noé는 수천명의 이민자와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 캠페인을 시작했고, 폴란드에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Równoc'는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받은 바구니 택배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소식 제공.
7	CEPES 바로가기 클릭	유럽사회기금(ESF) 중간지원기관인 CEPES는 올해 5월 23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승인함으로써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CEPES에는 스페인의 29개 사회적경제 대표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음.
8	CERCINA 바로가기 클릭	포르투갈의 Nazaré 지역의 장애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육 및 직업 지원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CERCINA는 코로나19 기간 지역 라디오 방송 Rádio Nazaré를 운영. 공중 보건 및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신뢰할만한 뉴스와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 고립과 싸우는 노인이나 디지털 소외자들에게 친근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9	CRESS 바로가기 클릭	Chambres Régionales de l'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지역사회연대경제회의, 프랑스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더 읽어볼 참고 사이트

10	<p>ESF 바로가기 클릭</p>	<p>European Social Fund. 유럽 시민을 위한 사회기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더 나은 직업을 찾아 삶을 개선하도록 돕는 목적.</p>
11	<p>European Social Economy Summit 2021 바로가기 클릭</p>	<p>유럽 지역위원회, DG 유럽위원회 고용 및 유럽 네트워크 Euclid와 함께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 지원 : 지역 및 지역 당국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5월 26일 워크숍 진행. 스트라스부르 시장인 Jeanne Barseghian와 많은 선출직 공무원이 연사로 참여. 주요하게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에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지역 당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 복원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p>
12	<p>EVPA 바로가기 클릭</p>	<p>‘Collaborate for Impact’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이벤트가 2021년 6월 9~1일 온라인으로 진행됨. ‘Collaborate for Impact’는 지역의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는 5개년 프로젝트로 3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기업이 향후 5년 동안 프로젝트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 이번 이벤트에서는 Eastern Partnership 지역에서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투자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지역 수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알아봄.</p>
13	<p>FDVA 바로가기 클릭</p>	<p>Fonds National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Vie Associative. 자원봉사자를 위한 훈련, 혁신적인 프로젝트 및 연구와 실험 지원.</p>
14	<p>FISO 바로가기 클릭</p>	<p>Fonds’ innovation sociale. BPIFrances에서 설립한 사회혁신 기금. 사회문제 해결, 일자리창출,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에 지원함.</p>
15	<p>Fondation Bettencourt Schueller 바로가기 클릭</p>	<p>1987년 설립된 프랑스 자선단체. 릴리/안드레 베탄코트 부부와 딸이 생체의학 연구와 예술 분야의 혁신을 도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설립.</p>
16	<p>France Active 바로가기 클릭</p>	<p>프랑스의 사회적기업의 사업지원 및 자금 조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네트워크. 1988년 보험 공제조합, 신탁은행, 종교단체가 연대해 만든 사회적 금융기관.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투자. 2019년 기준 7700개 프로젝트에 3억 7천 유로를 투자해 운용 중.</p>
17	<p>LEED 바로가기 클릭</p>	<p>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OECD 지역경제와 고용확대 프로그램. 지역 의제 발굴, 양질의 일자리,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p>
18	<p>Mötesplats Social Innovation 바로가기 클릭</p>	<p>스웨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이 사회적기업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핸드북.</p>
19	<p>Mouves 바로가기 클릭</p>	<p>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가 연대 네트워크 조직. 2010년 설립돼 2021년 회원 수는 850명.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p>

더 읽어볼 참고 사이트

20	<p>PIA 바로가기 클릭</p>	<p>Programme d'investissements d'avenir, 미래투자프로그램, 프랑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AVISE와 프랑스 액티브가 연계해 2000여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화 지원.</p>
21	<p>REVES 바로가기 클릭</p>	<p>REVES는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잠재력을 자극하는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연속으로 웨비나 진행. 4월 16일 진행된 '농촌 및 주변 지역의 개발 전략에 대한 참여적 공동 설계, 기회와 도전'에서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파트너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으며, 4월 28일 웨비나에서는 '글로벌 이익을 위한 지역 활동의 잠재력 발휘'를 주제로 2030년 주요의제인 지역사회경제지원재단에 대해 소개.</p>
22	<p>RTES 바로가기 클릭</p>	<p>RTES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연대경제를 지지하는 미래 지역팀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ESS 키트를 제안. 키트에는 20개의 시트가 사례별로 설명되고 있으며 지역협의회가 ESS를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시.</p>
23	<p>the wheel 바로가기 클릭</p>	<p>아일랜드의 지역사회 및 자발적 조직, 자선 단체 및 사회적기업의 전국 협회인 the wheel은 아일랜드의 미래를 위한 지역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역할에 대해 아일랜드와 그 외 지역에서 온 12명 이상의 연사(지역사회 및 농촌개발 및 자선 부장관 등)가 참여한 'SUMMIT 2021'을 5월 19-20일 진행함. 코로나19 기간 집단적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한 조직과 인력 준비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p>
24	<p>Vinnova 바로가기 클릭</p>	<p>스페인 사회혁신 프로그램 지원, 사회혁신 연구와 혁신 사업에 자금 지원.</p>
25	<p>WFLED 바로가기 클릭</p>	<p>제5차 지역경제개발글로벌포럼(World Forum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가상포럼 형태로 진행됨.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세계인의 대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협력과 동맹을 촉진/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40개 이상의 세션을 생중계. 포럼은 △혁신과 경제, 사회 및 환경 재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지역 △코로나19 위기에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경제 모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 지역적 관점에서 본 직업의 미래 등을 주제로 진행됨.</p>
26	<p>WISE 바로가기 클릭</p>	<p>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p>
27	<p>World Centric 바로가기 클릭</p>	<p>2004년 설립. 퇴비화 가능한 제품 판매와 교육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기반 개발에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사람과 지구를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하고자 퇴비화 가능한 제품 판매를 주사업으로 진행. 2020년에는 우간다 지역에 Kabukanga 클러스터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물 자원, 금융문맹 퇴치, 농업 교육 등을 진행.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447개 파트너 마을이 24개월 이내 가구 소득 및 소비를 늘리도록 지원하여 지역 빈곤문제 해결.</p>
28	<p>WORLD ECO-NOMIC FORUM 바로가기 클릭</p>	<p>인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6개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스왑재단(Schwab Foundation)이 소개. 인도의 심각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취약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민첩한 현장 지원과 최초 대응자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p>